

## 제6강 - 헥토르의 죽음과 프리아모스의 간청

(1교시)

### ◆ 헥토르의 최후와 유린당하는 시신

#### ※ 학습목표

아킬레우스의 결투에서 패해 최후를 맞는 헥토르와 그 시신을 유린하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살펴본다.

#### ▲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투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헥토르와 싸워 이겨야 한다. 아킬레우스가 새 무장을 하고 전장에 나타나자 모든 트로이아 병사들은 트로이 성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성 앞으로 나아가 헥토르의 출전을 요구한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가 아킬레우스와 대적한다. 자기마저도 아킬레우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트로이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트로이아 병사들과 백성의 안위를 위한 것이다.

헥토르가 쓰고 있는 투구와 갑옷은 원래 아킬레우스의 것이다.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가로막고 있다.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아들 헥토르가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킬레우스, 분노한 아킬레우스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의 출전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의 만류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아들 안드로마케와 갓 태어난 어린 아들도 뒤로 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아킬레우스와 대적하기 위해 출전하게 된다.



#### ▲ 운명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나

트로이아 성 앞에서 신화에서 역사적인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일전이 벌어진다. 그들이 대결을 벌일 때, 제우스는 운명의 저울로 두 영웅의 운명을 저울질한다. 헥토르는 부계로는 제우스의 혈통이다. 아킬레우스 펠레우스 왕의 가문으로 역시 제우스의 혈통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전쟁 처음부터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두 영웅의 결전이 벌어지고 제우스는 두 영웅의 운명을 저울질한다. 이 대결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분노한 아킬레우스를 힘들게 대적하던 헥토르는 트로이아 성 주위를 따라 달아난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쫓아 트로이아 성곽을 세 바퀴 돌았

다고 전해진다. 그런 이유는 제우스의 손에 있었던 운명의 저울이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 바퀴를 돌자 제우스가 저울질했던 운명의 저울은 헥토르의 운명을 달았던 저울추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운명의 저울에서는 가라앉는 쪽이 나쁜 쪽으로 아래쪽은 하데스의 지하세계, 죽음을 가리킨다. 헥토르의 운명이 하데스로 기운 것이다. 이 사실을 알자 세 바퀴를 돌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폴론의 도움이란 것이 밝혀진다. 자신의 아들이 아킬레우스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트로이아를 수호하느라 헥토르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운 것이다. 그런데 제우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모든 신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주어진다. 즉 헥토르의 운명이 하데스로 가라앉았다면 아폴론도 더 이상 헥토르를 구제해줄 수 없다.

#### ▲ 헥토르의 죽음



아테나여신 - 여신들 중에 유일하게 전쟁용 투구와 창을 가지고 있다

운명의 결정이 나자 아폴론은 헥토르 곁을 떠나고 아테나가 아킬레우스를 편들게 된다. 아테나 여신은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변신해 두 영웅사이에 끼어든다. 데이포보스로 변신한 아테나는 헥토르에게 도망가지 말고 말을 돌려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우라고 한다. 상대는 분노로 가득 차있고 자신이 도울 것이므로 헥토르가 이길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다. 헥토르는 그 말에 듣고 말고뺨를 돌려 아킬레우스와 대적하지만 결국 아킬레우스의 창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죽기 직전 데이포보스가 사실은 아테나 여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헥토르는 죽어가면서 아킬레우스에게 그의 운명의 날도 멀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그렇게 트리아모스 집안의 장남이자 트로이아의 총사령관 헥토르라는 위대한 인간의 영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 끌려다니는 헥토르의 시신

아킬레우스는 죽은 헥토르에게서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무장을 벗겨내 자신의 것으로 하고 발뒤꿈치를 뚫어서 가죽 끈으로 매어 자신의 마차 뒤에 매고 트로이아 섬을 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서 사용했던 전쟁용 이두마차다. 벤허 등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이것은 실제로 로마시대까지 기병용으로 사용됐던 마차다. 앞서 설명했듯 인간의 마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끌었고 신의 마차는 네 마리, 인간의 두 배다. 그런데 신들의 사두마차가 인간에게 넘어오면서 로마에서 쓰이고 영국의 황실에서는 여덟 마리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행위를 보고서 많은 해석자들이 아킬레우스가 격정에 사로잡힌 광폭한 전쟁의 노예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헥토르도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에서 아킬레우스의 투구와 갑옷을 벗겨내 자신이 착용한다. 아킬레우스의 투구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상징으로 삼고 그리스 연합군들에게는 용기, 성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트로이아 병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침통함을 전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신을 유린한 이후 날이 저서야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막사로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이 시신을 마차 뒤에 매달고 다시 자갈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유린한다. 그러나 헥토르의 시신은 것처럼 험한 자갈밭에서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살 한 조각도 찢겨나가지 않았다고 호메로스는 전한다. 그 이유는 바로 신들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다. 헥토르는 제우스의 가문이었고 또 인간으로서 특히나 인간의 영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웅의 죽음에 대해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신들이 취한 것이다.

#### ▲ 치러지지 못하는 헥토르의 장례와 신들의 분노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앞에 맹세했던 내용, 즉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12일 동안 매일 시신을 유린하고 다닌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12일째 되는 날 장례를 치렀다. 장작더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육신은 위로, 신의 세계로 보내고 영혼은 하데스로 가서 세 명의 심판관에게 심판을 받아 생전의 업적에 따라 엘리시온이나 타르타로스로 보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의해서 올바른 장례를 치루지 못했다. 제우스는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테티스여신을 불러 아킬레우스의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제우스 본인을 포함한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전하게 한다. 그리고 테티스 여신은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제우스의 이야기를 전한다.

#### ▲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적진으로 향한 프리아모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레를 이끌고 이다리오스라

고 하는 마부 하나만을 데리고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는다. 이다리오스가 끌고 있던 수레에는 헥토르의 시신을 넘겨받을 때 대가로 지불할 어마어마한 몸값이 수레 가득 실려 있었다.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찾아간 것이다.



여기가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대결을 벌였던 곳이다. 이곳이 반나절 이상 세 바퀴를 돌았던 트로이아성이다.

그리스 진영과 지중해가 있다. 지중해 바닷가에는 그리스 연합군이 타고 온 선단이 정박해 있을 것이고 그 앞쪽에 그리스 연합군의 막사가 있었을 것이다.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의 막사는 뒤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고 정찰병이 숨어있는 전쟁터를 통과해서 그리스의 초병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지나 그리스 병사들이 목고 있는 막사를 지나 가장 후방에 있는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들어와야 된다. 상대는 트로이아 성의 성주이다. 만약 일개 말단 병사가 적군의 성주의 목을 베어간다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프리아모스 왕이 트로이아 성에서부터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가는 것은 살아남을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다. 그런데 프리아모스는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정확히 도착한다. 이는 신이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인도한 신이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이다. 그러면 프리아모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인정한 신은 결국 제우스인 것이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불러서 이미 아킬레우스의 행위를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프리아모스와 이다리오스일행을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수호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제6강 - 헥토르의 죽음과 프리아모스의 간청

(2교시)

### ◆ 프리아모스의 간청

#### ※ 학습목표

『일리아드』 마지막 부분인 ‘프리아모스의 간청’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 ▲ 프리아모스의 간청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1권 1행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리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이라는 구절로 시작되어서 24권 457행까지의 이야기다. 마지막 부분 24권 468행부터 595행까지의 이 부분이 ‘프리아모스왕의 간청’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다.

호메로스 『일리아드』中

헤르메스는 높은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한편 프리아모스는 마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려 말들과 노새들을 붙들고 있도록

이다이오스를 뒤에 남겨두고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아킬레우스가

늘 앉아있곤 하던 그의 처소로 곧장 나아갔다.

\* 헤르메스는 프리아모스를 아킬레우스의 막사 앞까지 인도하고 올림포스로 돌아감

\* 호메로스는 언제나 인물이나 신을 묘사할 때 합당한 수식들을 붙인다.

ex>은족의 테티스(은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님)

아킬레우스에 대해서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이라고 수식한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 안에서 노인은 그를 발견했고  
그의 전우들은 좀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위대한 프리아모스가 들어가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 프리아모스의 수식은 ‘위대한’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래서 노인은 가까이 다가가  
두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그의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 잡는  
그 무시무시한 손에 입을 맞추었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마치 어떤 사람이 무서운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방의 어떤 부자집으로 피신하게 되면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듯이  
꼭 것처럼 아킬레우스는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를 보고...

\*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 - 호메로스가 인간에게 하는 최상의 수식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그에게 이런 말로 애원했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나의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혹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를 괴롭히더라도  
그를 파멸과 재앙에서 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신과 같은’이라고 지칭
- \* ‘그대의 아버지’ - 펠레우스 아들 (아킬레우스가 참전 중이기 때문)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래도 그는 그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와  
 상봉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यो.  
 하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यो.  
 넓은 트로이아 땅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자식들을 낳았건만 그 중 한 놈도 안 남았으니  
 말ियो.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왔을 때,  
 내게는 아들들이 쉰 명이나 있었소. 그 중  
 열 아홉명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후실들이 나를 위해 집 안에서 낳아 주었소.”

- \* 아카이아인 : 그리스 종족의 이름
- \* 한 어머니 : 헤카베 왕비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한데 그들 대부분의 무릎을  
 사나운 아레스가 풀어 버렸소.  
 그리고 혼자 남아서 도시와 백성들을 지키던  
 헥토르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얼마 전에 그대의 손에 죽고 말았소.”

- \* ‘그들 대부분의 무릎을 사나운 아레스가 풀어 버렸소.’ - 호메로스의 작가적 부분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12주신으로 전쟁을 주관한다. 로마신화에서  
 는 마르스(Mars)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마르스는 화성을 지배했던 신이다. 무릎이 풀리면  
 쓰러지게 된다. 무지막지한 전쟁의 신이 인간의 무릎을 풀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이 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로노  
 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장면을 ‘닉스여신이 찾아오자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치  
 고 밤이 되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이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상상력의 차이로 상상력의  
 차이가 갖는 문화적 양상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 \* ‘헥토르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님.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래서 나는 그대로부터 그를 돌려받고자  
 해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이렇게



아카이아인들의 함선을 찾아온 것이요.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 프리아모스가 찾아온 목적(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함)이 드러남.

호메로스 『일리아드』中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차마 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자기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다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에게 간청하는 프리아모스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

그림을 보면 노왕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무릎을 잡고 간청한다. 아킬레우스는 뒷부분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 침대가 아니라 식사하는 자리로 전우들과 식사를 마친 후다.

- 심포지움

그리스인들은 식탁이 아니라 Symposium에서 사용되는 의자에서 식사를 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Sym은 함께라는 뜻이고 posium은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형이다. 심포지움은 우리말로 옮기면 ‘함께 마시는 일’이다. ‘함께 마시다’라는 뜻의 심포지움이라는 단어가 ‘학술대회’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이 ‘함께 마시는 자리’에서 그리스인들은 장시간동안 식사와 음주가무를 즐긴 것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대화』에서도 심포지움은 아가톤이라고 하는 유망한 집안의 아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탄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열린 것으로 그 주제가 사랑이었다.

실제로 의자 앞에 헥토르의 시신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에서는 상장을 위해 시신을 가져다놓았다.

#### ▲ 아킬레우스의 화답

호메로스 『일리아드』中

그래서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살며시 뒤로  
밀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저마다 고인을  
생각했으니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 잡는 헥토르를 위해  
통곡했고, 아킬레우스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또 때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 찼다. 그러나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실컷 울고 난 뒤에 울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과 사지에서 떠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노인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가엾게 여겨 그를 향하여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프리아모스왕의 간청에 대한 답변이다.

“아아, 불쌍한 분, 그대는 마음속으로 많은  
불행을 참았소이다. 그대의 용감한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의 눈을 만나보고자  
이렇게 혼자서 감히 아카이아인들의 함선을  
찾아오시다니! 그대의 심장은  
진정 쇠로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자, 아무튼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무리  
괴롭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잠시 가슴 속 깊이  
묻어 두기로 합시다. 비통하게 운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들은 비참한  
인간들의 운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하나 그들 자신의 슬픔을 모르지요. 제우스의  
궁전 마룻바닥에는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악의 선물이 다른 하나는 선의 선물이  
가득 들어있지요. 우레를 좋아하는 제우스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는 사람은 때로는 악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나 그분께서 악의 선물만을 주는 자는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에게서도  
인간에게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심한 굶주림에  
쫓겨 성스러운 대지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요.  
그처럼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은 그가 날 때부터  
값진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는 행운과 재물에 있어  
모든 사람을 능가했으며  
또 뮈르미돈인들의 왕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신들은  
죽어야 할 인간에 불과한 그에게  
여신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 인간의 입장에서 신과의 결혼은 크나큰 축복이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하나 그에게도 신은 악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궁전에는 왕위를 이을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 분의 외아들인  
나는 요사(夭死)할 운명을 타고 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늙어가시는 그 분을  
나는 돌보아 드리지도 못합니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고향에서 머리 떨어진 트로이아에 앉아서  
나는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노인이여,  
그대도 전에는 행복했었다고 들었소이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남쪽으로는 마카르의 영지인 레스보스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프리기예와  
끝없는 헬레스폰토스와 경계를 이루는  
넓은 땅에서, 노인이여, 그대는 재물과

자식에 있어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고  
말하고들 있소.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한데 하늘의 신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그대에게 대려 그대의 도시 주위에서는  
전투와 살육이 그칠 날이 없구료.  
꼭 참으시고 그렇게 마음 속으로  
슬퍼하지 마시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아들을 위해 슬퍼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대가 그를 다시 살리지도  
못할 것이요. 그 전에 다른 재앙이  
그대에게 닥칠 것이요.“

계속 두 번째 프리아모스의 간청이 이어진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그러자 신과 같은 노인,  
프리아모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양자여...”

\* “제우스의 양자여...” 감히 인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님.

호메로스 『일리아드』 中  
“헥토르가 돌봐 주는 이 없이 막사 사이에  
누워 있는 한 나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그를 돌려주시어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해주시오.”

#### ▲ 생산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없는 『일리아드』

『일리아드』의 문학적 특징 중 하나는 단 한구절도 생산적인 묘사가 없다는 것이다. 9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 중 탄생이나 수확, 사랑에 관한 것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혹은 9세기 후반 기원전 12세기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작품을 썼다. 호메로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실재했었던 트로이아 전쟁을 가장 참혹한 전쟁사로 기억한다. 그 참혹한 인간의 전쟁,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이 소외되는 모습을 보다 철저하게 그려내기 위해 호메로스는 인위적으로 생산적인 묘사를 뺀 것으로 추측된다.

호메로스의 생가가 적막한 곳에 위치한 것을 근거로 어떤 비평가는 그의 성장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에 『일리아드』에 생산적인 묘사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못한 견해다.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인 『오뒤세이아』의 시작이 오뒤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탄생인 것을 보면 『일리아드』에서 생산적인 요소를 뺀 것 호메로스의 문학적 장치다.

#### ▲ 『일리아드』에서 ‘프리아모스왕의 간청’의 효과 - 카타르시스

■ Priamos 왕이 눈물을 보이면서 Achilles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 줌.

■ 이것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던 모습에서 극적으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반전을 보여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비극작품이 아니다. 장르로 따지자면 영웅서사시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3대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이킬로스는 호메로스의 전통 위에 서있다. 그리고 이 전통에 의해서 일관되게 그리스의 비극작품이 구상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저술을 보면 ‘가장 훌륭한 문학작품은 인간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비극과 희극 모두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만 비극이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더 크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한다.

#### ■참고자료



디오니시우스 롱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학』 문예출판사, 2002

고대그리스에서 카타르시스는 ‘배설하다’는 뜻이다. 카타르시스는 고매하고 고급한 무엇을 향유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으로 개념을 바꿔서 설명하면 정신적인 중압감이 일순간에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나에게서 배설되는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1권부터 참을성을 가지고 읽는 독자에게 호메로스는 엄청난 정신적 중압감을 준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인 24권에서 아들을 잃은 노왕이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그 젊은 영웅 아킬레우스 스스로도 이 전투에 대한 일종의 회의와 이 전쟁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토로하고 그 노왕을 위로하고 시신을 아무말 없이 돌려주는 부분을 통해 그 어마어마했던 중압감을 일순간에 배설할 수 있다.

이 방대한 영웅서사시 중에 얼마 안되는 이 몇 구절이 없었으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각인되지 못하고 단지 현존하는 최초의 문학작품이라고만 기억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로 인해 문학성을 인정받고 후대의 비극작가들

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원전 5세기, 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양인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호메로스의 시구를 암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그렇게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